

남북협력동향

(2007. 6. 23 ~ 9. 28)

■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위한 중유 5만톤 제공(6. 30, 통일부)

- 남북은 2.13합의 이행 관련 중유 5만 톤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6. 29~30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
- 남한은 중유 5만 톤(유황성분 2.5%)을 해로를 이용하여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 인도·인수절차 합의 후 2주 이내에 첫배를 출항시키며, 첫 배 출항 후 20일 이내 중유 5만 톤에 대한 출항을 완료하기로 합의
 - * 항구별 수송량 : 선봉(35,000톤), 남포(15,000톤)

■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7. 2, 통일부)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 등을 서면으로 심의, 의결

<주요 개선내용>

- 개성공단 투자자산 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
 - 개성공단 투자자산 담보인정비율 : 현행 44%→54%로 상향(토지이용권 및 건물 : 50%→60%, 기계설비 : 30%→40%)
- 후취담보 대출 취급요건 : 현행 신용등급 P4이상→P6이상으로 완화
- 예금 및 부동산 담보제공시 신용위험가산율을 인하하는 등 채권보전 방법에 따른 신용위험 가산율의 차등폭을 확대

- 부분보증 취급한도 등을 완화(취급한도 : 5천만원 → 교역 2억원, 경협 5억원)하여 신용 취급 범위를 확대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이행기구간 실무협의 개최(7. 7, 통일부)

- 남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간 제2차 실무협의’를 “07.7.5~7”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의사무소에서 개최
- 남·북 이행기구 : 남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 - 민족경제협력연합회
- 주요 합의내용
 - 남한은 북한에 2007년 중 총 미화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제공
 - 남한 기술지원단 10명 구성, 북한 경공업 공장 1차 현장방문(8.7~11) 및 추가 3회(9월, 11월, 12월) 실시
 - 경공업 원자재 대가 3%(아연과 및 마그네슘크링카)는 2007년 중 2회(원자재 50% 및 100% 제공시점)로 분할하여 상환
 - 북한은 3개 광산(검덕, 대흥, 룡양)에 대한 자료를 7.19 제공하고, 제1차 현지 공동조사(7.24~8.11, 남북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 실시

■ 북 외무성, 영변핵시설 가동중단 발표(7. 14, 15, 연합뉴스, 교도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을 발표
- 주요 발표 내용
 - 우리(북한)는 합의대로 중유 5만t의 첫 배분이 도착한 14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IAEA 인원들에게 그에 대한 감시를 허용
 - 2.13합의의 완전한 이행(불능화 등)은 미국, 일본이 대북 적대 정책을 해소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에 달려 있음
 - 영변에서의 IAEA의 활동은 사찰이 아니라 검증 감시에 국한

■ '07년 상반기 남북 교역 동향(7. 11, 통일부)

- '07년 상반기 남북교역액은 718,169천 달러로 전년동기 558,079천 달러 대비 28.7% 증가
 - 상업적 거래 : 558,711천 달러(전년동기 대비 45% 증가)
 - 비상업적 거래 : 159,458천 달러(전년동기 대비 8.3% 감소)
- 남북교역 증가요인
 - 일반교역 : 광산물, 수산물 등 국내시장 수요증대로 반입이 증가
 - 개성공단 : 섬유류 등 생산물 반입 및 공장 설비 등으로 반출이 증가
- 비상업적 거래에 있어 대북 쌀, 비료 지원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

■ '07년 상반기 남북 간 선박운항 동향(7. 10, 통일부)

- '07년 상반기 남북 간 선박운항이 편도기준 6,114회로 전년동기 3,108회 대비 96.7% 증가
- 상반기 남북한 간 선박운항 증가는 주로 북한산 모래수송 선박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주요 수송 화물은 모래, 수산물, 건설자재 등임

<'07년 상반기 남북한간 선박운항 횟수 및 물동량 현황>

구 분	선박 운항횟수(회)			물동량(톤)		
	남한→북한	북한→남한	총횟수	남한→북한	북한→남한	총물동량
'06년 상반기	1,552	1,556	3,108	388,219	4,714,152	5,102,371
'07년 상반기	3,053	3,061	6,114	457,366	12,117,668	12,575,034
증가율(%)	96.7%	96.7%	96.7%	17.8%	157.0%	146.5%

■ 이집트 건설사, 북한에 약 1억 달러 투자(7. 16, 파이널설 타임즈(FT))

- 이집트의 시멘트 제조 및 건설업체인 오라스콤(OCI)이 북한 상원시멘트에 1억1천500만(약 1천55억원)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

- OCI는 북한 국영 평양명당무역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지분의 50%를 취득할 예정
- 상원시멘트는 OCI로부터 유치한 자본으로 공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연 300만t 규모로 확장하며,
- 레미콘 사업 및 관련 자원 채취, 공장 인근 수력발전 설비 등에 투자할 계획
 - * 평안남도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영 시멘트 공장인 상원시멘트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39호실 직속으로 독일의 설비 지원을 받아 1989년 4월 조업을 시작

■ 개성공단 최저노임 5% 인상 합의(8. 3,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최저 임금(기본급)이 8월부터 5% 인상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체결
- 북한 근로자의 월 기본급(사회보험료 15% 포함)은 현재 57.5달러에서 60.375달러로 2.875달러 증가
- 5% 인상은 입주기업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승폭이며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임
- 관리위원회와 총국은 매년 8월 1일 월 최저노임을 합의하여 정하기로 합의
 - * 관련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 ‘북측 근로자 노임을 전년도 노임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8. 8, 9, 12, 연합 등)

-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8. 28일~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남북 당국이 8일 공식 발표
- 남북정상회담합의서 주요 내용
 - 8. 28일~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함

-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남북정상회담 사무처를 구성
 - 추진위원회는 청와대 안보실장, 통일·외교통상·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하여 회담 의제 등을 협의
 - 준비기획단은 통일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되어 대표단 규모, 체류일정, 왕래절차 등 방북 관련 제반 대책을 협의
 - 사무처는 통일부 차관, 관계 부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여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휘·조정

■ 북한 수해피해 현황 및 지원 현황(8. 14~24, 통일부, 연합 등)

□ 북한 수해피해 발생 현황

- △주택 8만여 세대 손상 △이재민 30만 명 이상 △전체 논밭 11% 유실 또는 침수 △철도, 도로 540여 개소와 공장, 기업소 등 400여 곳 침수 △ 사망 454명, 실종 156명 등
-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공업 부문에서 수십만의 석탄 유실, 400여 개의 갭, 채탄장(단천 지역 포함) 등이 침수 및 붕괴

□ 남한의 북한 수해피해 지원 현황

- 정부 지원
 - ‘대북수해 피해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
 -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75억원,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 대한 매칭지원 30억(1:1 매칭) 등 총 105억을 지원
 - 대북 수해복구 자재·장비 지원(총 374억원 규모)
 - △시멘트 10만 톤 △철근 5천 톤 △트럭 80대(8톤 20대, 5톤 60대) △연료 500톤 △도로복구장비(4종) 20대 △피치 2만 톤 등
- 민간 지원
 - 대한적십자사 긴급식량, 생필품 등 71억원 상당

- 굿네이버스, JTS 등 북민협 소속 59개 단체는 1차로 147억7천500만원 상당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
- JTS 밀가루, 라면 등 3억원 상당 기 지원
- 굿네이버스 의약품, 의류 등 3억5천만원 상당 지원(지원 계획 : 60억원) 기 지원
- 월드비전 의약품, 생필품 등 2억원 상당 기 지원
- 남북나눔운동 의약품, 생필품 등 8억원 상당 기 지원

■ 대북 수해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 운용계획 변경(9. 4, 통일부)

- 남북교추협은 9.4일 ‘대북 수해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 정부는 북한수해 복구자재·장비(374억원 상당, 부대경비 100억원 별도)와 함께 UN 인도지원조정국(OCHA)의 긴급구호 호소에 대해 2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
 - * 복구자재·장비는 9.10일경부터 육로·해로를 병행하여 전달되며, 9월 말까지 전달을 완료할 예정(시멘트는 10월 중순경)
-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0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 ‘인도적 사업’ 프로그램을 당초 2,560억원에서 3,010억원으로 450억원 증액
 - * 수해복구 사업비(493억원) 중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부족분(450억원)을 여유자금(1,420억원)을 통해 확보

■ 러시아, 남북-시베리아선 연계 등 투자 계획 공개(9. 5, 연합뉴스)

- 러시아가 한반도 남북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계운행을 포함해 자국 철도 현대화에 2030년까지 13조루피(미화 5천60억 달러 가량)를 투자하는 계획을 공개
- 러시아철도공사 블라디미르 야쿠닌 사장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이 프로젝트를 보고했다고 밝힘

-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존 철도를 개량하는 1단계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만5천800km의 철도를 신설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 * 지난 4월 야쿠닌 사장은 사할린 - 러시아 기간 철도 간 연결작업도 추진될 것임을 밝혔으며, TKR 업그레이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블룸버그 통신). 이후 야쿠닌 사장은 6. 1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과 연내에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역을 잇는 철도구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일본, 대북 경제제재 6개월 연장할 방침(9. 8, 요미우리 신문)

- 일본 정부는 10. 13일 종료되는 대북 경제제재 시한을 6개월 간 연장할 방침
-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06. 10월 6개월 시한으로 시행됐으며 4월 한차례 연장된 바 있음
- 현재 적용 중인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주요 내용
 -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원칙적 금지, 북한 관계자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등
 -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제재를 해제하면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개성공단 생산·수출 증가세 지속(9. 18,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생산·수출액이 '07년 상반기에 지속적 증가세 유지
 - '07년 상반기 생산액 : 약 7천8백만 달러(전년 동기 약 2천7백만 달러 대비 2.8배 증가)
 - '07년 상반기 수출액 : 약 1천8백만 달러(전년 동기 약 6백만 달러 대비 3배 증가)
- '07년 상반기 전체 생산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5%('06년 하반기 22.5%)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생산액			수출액		
	'06.1~6	'07.1~6	증감률	'06.1~6	'07.1~6	증감률
금 액	27,398	77,504	182.9	6,055	18,193	200.5

■ 미국, 미사일 수출관련 북한기업 제재조치 발표(9. 27, 미국 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미사일 확산과 관련된 북한의 기업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발표하고 조치 내용을 관보에 게재
- 제재조치 대상 북한기업 :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 제재조치 내용
 -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사업 참여와 대미수출이 2년 간 제한
 - 미국 정부의 각종 조달사업에의 참여제한 및 기존 계약의 해지
 - 제재대상 기업에 대한 미국정부기관의 원조 금지
 - 제재대상 기업으로부터 물자, 기술 등의 수입 금지
 - 대상 기업으로의 미국산 군수물자의 수출 또는 제3국 경유 이전 금지
- * 조선광업개발회사(Korea Mining and Development Corporation) :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위치하며, 아연·동정광 등을 수출하는 무역회사로 알려짐